조민규(박사 3기) | 12면 사람

이번 학기 우리신문은 학부 이후 취업과 대학원 진학의 갈래에서 연구자의 삶을 선택한 '공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주목한다. 이번 신문에서는 '고차스핀중력'을 연구하고 있는 조민규(박사 3기) 씨를 만나봤다.

유학생 감소세, 드러난 중국 의존 구조의 한계 | 3면 기획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유학생 수를 가파르게 끌어올렸던 우리학교는 최근 4년간 내실 부족 속에 타대학 대비 많은 유학생 감소 추세를 겪고 있다. 우리학교의 외국 학생 유치를 위한 외부 전략 현황과 대책을 알아봤다.

제 1759 호
2026년 4월 13일 월요일

대학주보

양캠 총학 공약 '학점지우개' 시작부터 난관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이번달 출범한 양캠 총학생회(총학)가 "서로 협력하겠다"며 '학점지우개 제도' 시행을 공통적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교무처 학사지원팀이 해당 제도 도입에 관해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며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벌써부터 제동이 걸렸다.

양캠 총학은 선거 당시 학점지우개 제도를 통해 5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을 대상으로 필수과목을 제외하고 최대 6학점 범위 내에서 기존 성적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학점지우개 제도가 필요한 이유로 서울캠 총학은 '재수강 제도의 일방적인 변경으로 인한 성적 보완 기회 제한'을, 국제캠 총학은 '국내 주요 대학 가운데 상대적으로 엄격한 학점 부여 방식'을 꼬집었다. 이에 더해 기존 '학점 포기 제도'가 대상 과목이 폐강됐을 시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등 성적 구제책으로서 실질적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학점지우개 제도는 폐강 강좌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기존 학점포기 제도와 달리 취득 학점을 제한 없이 삭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교무처 학사지원팀은 "학점지우개 제도는 학점 인플레이션을 야기해 대학 성적의 대외 공신력을 떨어뜨린다"면서 "학생들이 학기 말까지 최선을 다해 성취를 이루려는 학문적 도전 정신과 책임감을 저해하는 등 교육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캠 총학은 본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임기 동안 꾸준히 본부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거 준비 단계서부터 본부로부터 학점지우개 관련 우려 사항을 전달받은 국제캠 정재우(포스트모던 음악학 2020) 총학생회장은 "학사는 도전이라고 생각한다"며 "안 된다는 의견을 곧바로 수긍한다면 실질적인 발전이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6월에 예정된 소통간담회나 총장님과도 개별적으로 만나며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이라며 "설령 올해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달성될 수 있게끔 관련 화두를 던지고 계속 이기조를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캠 총학 역시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캠 신창훈(행정학 2021) 총학생회장은 "더 논리적인 근거를 모으고 요구안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활용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안을 들고 찾아갈 것"이라며 "학교와 계속해서 대화해서 어떻게든 설득해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당장 이행할 수 없는 '포퓰리즘 공약'이 아니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제도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저희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달성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도 있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그동안의 총학은 학생 대상 설문조사 자료를 뽑아 학교에 요구하면 학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고 묵묵부답으로 끝나는 식이었다"며 "최소한 안 되는 이유라도 명확히 밝히도록 소통의 부재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캠 봄맞이 축제 '경희랜드' 열려

지난 8일부터 이틀간 노천극장 일대에서 '2026 경희랜드'가 개최됐다. 행사는 노천극장으로 향하는 오르막길과 주변 길목에 늘어선 벚꽃 나무 아래에서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프로모션 부스 ▲푸드트럭 ▲학생 부스 ▲야외공연이 진행됐다. (사진=도은오 기자)

유학생 정책, 질적 성장으로 전환

이서현 기자 is4203850@khu.ac.kr

【2보】 4년새 735명이 감소했던 학부 유학생 감소 추세가 소폭 반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신문의 보도 이후, 국제처는 유학생 수가 2025학년도 2학기 2,405명을 저점으로 73명이 증가했음을 알려왔다. 이에 따라 현 시점 양캠 학부 유학생 수는 2,478명으로 집계된다.

국제처 글로벌입학팀은 유학생 수 반등의 주된 배경으로 교육부와 법무부가 공동 주관하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에서의 우수인증대학 선정을 꼽았다. 이 제도는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리, 교육과정 운영, 학사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입학팀은 "이런 공인 인증 지표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인원 반등으로 이어졌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글로벌교육지원팀 김은정 과장은 "유학생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우리학교의 유학생 정책은 양적 팽창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고 있음도 확인됐다. 김 과장은 "과거에는 유치 규모 자체가 중요했다면 이젠 입학생들이 우리학교에서 역량을 키워 대학원 진학이나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글로벌교육지원팀은 지난 1월 『외국인 유학생 역량성장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지난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된 유학생 핵심역량 인증제인 'KHU-PASS(쿠패스)' 제도 역시 역량 강화의 일환이다.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도 이뤄졌다. 학생마다 한국어 수준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학기부터 글쓰기 특강과 OA(한글·엑셀) 특강을 기초와 심화 분반으로 나눠 운영한다. 한 번만 수강하면 됐던 인증 시스템도 개편한다. 김 과장은 "단발성 교육에 그치지 않고 기초에서 심화로 이어지는 나선형 구조의 역량 개발이 가능하도록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장학 제도와 교류 프로그램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기존에는 학년과 무관하게 TOPIK(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취득 시 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나 1~2학년(최초 수혜자 한정)의 경우 지급액을 80만 원으로 인상했다. 저학년 시기에 한국어를 조기 습득해야 고학년 때 원활한 학사 이수, 해외 연수, 진로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유학생 대상 FGI(표적집단면접) 설문에서 제기된 "한국인 학생들과 교류할 기회가 부족해 소외감을 느낀다"는 의견을 반영해 지난 2025년 하계방학부터 실시한 프로그램도 있다. 유학생이 한국인 학생을 자신의 고향으로 초대하는 'Global SDGs Team Project'는 2026년 세계 대학평가(THE Awards Asia) 환경 부문 8개 팀 후보에 오르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교육지원팀은 새로 도입된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 과장은 "본격적인 유학생 역량 강화 계획을 시도한 두 학기 째 접어든 만큼 완벽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제도를 계속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과장은 "앞으로도 유학생들이 지난 학기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

“여기가 뭐하는 곳이죠?”…불친절한 표지판 서울캠 일부 개선, 국제캠은 개선 필요

서라수 기자 sooxoosoo@khu.ac.kr

 # 우리신문은 지난 2019년 교내 현판의 부재와 표지판의 정보 전달 미비 문제를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표지판 없는 캠퍼스...“어디로 가야하죠, 선배님?”/대학주보 1644호/2019.03.18.) 7년이 지난 지금 양캠의 표지판 정비 현황을 알아봤다.

2019년 당시 가장 크게 지적됐던 문제는 눈에 띄지 않는 현판과 표지판의 불친절함이었다. 특히 현판이 한자로만 표기돼 있던 정경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은 그대로였다. 또한 현재 생활과학대학은 외부 현판이 없다. 경영대학은 작은 현판에 ‘오비스홀’이라고만 표기돼 있다.

올해 입학한 김하현(경영회계계열 2026) 씨는 “경희고등학교로 내려가야 하는데 표지판이 없어 길을 잃고 행복기숙사 뒤쪽으로 돌아가는 일이 빈번하다”고 말했다.

일부 건물은 변화가 있었다. 7년 전 한자 현판만 있었던 청운관은 건물의 입구 위에 한글표기가 생겼다. 완공된 후 현판이 없다고 지적됐던 스페이스21 건물엔 각각 한의과대학, 간호과학대학, 이과대학을 표기한 안내판이 설치됐다.

이에 서울캠 총무관리처 관리팀은 “기존의 표지판에서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보수 및 교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구에 현판이 없는 서울캠 생활과학대학 건물 (사진=박류빈 기자)

국제캠은 현판과 실제 건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홈페이지에 ‘국제·경영대학관’으로 명시된 건물의 입구에는 ‘동서의학대학원’이 적힌 현판이 설치돼 있어 혼란을 야기한다. 이 건물은 실제론 동서의학대학원으로 쓰이고 있다. 이는 국제경영학과가 해당 건물에서 퇴거한 이후에도 명칭이 변경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다.

이처럼 실제 건물 명칭과 현판이 일치하지 않아 학생들은 혼란을 겪는다. 강정모(응용수학 2025) 씨는 “수강신청 후 강의계획서에 강의실이 국제·경영대학으로 표기됐는데, 들어본 적이 없어 찾아봤다”며 “어느 단과대의 건물인지 무엇을 하는 건물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양캠 모두 주요 건물의 위치를 알리는 표지판이 부족하다. 7년 전 여러 건물로 향하는 길이 하나의 표지판에 화살표로만 표시돼 방향이 불분명했던 것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양캠은 별도의 보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캠 총무관리처 관리팀은 “캠퍼스맵은 이미 홈페이지에 안내돼 있기 때문에 정문에 안내도를 추가 설치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국제캠 총무관리처 관리팀은 “현재까지 안내 표지판과 관련해 민원이나 불편 사항이 없어 보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총학생회칙 개정 투표 무산…자유전공학부 중운위 참여 어려워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국제】 총학생회칙 개정에 대한 학생총투표가 무산되며 자유전공학부(자전)는 올해도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 참여가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보궐선거를 준비 중에 있는 자전은 정식 학생회 출범 시 추후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총학생회칙 제14차 개정안을 안건으로 한 이번 학생총투표는 세 차례의 연장투표에도 불구하고 최종 투표율이 43.52%에 그쳤다. 이에 따라 선거시행세칙 제53조 제1항 나목 “연장투표에도 불구하고 전체 투표율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로 한다”에 의거해 투표가 무산됐다.

이번 회칙 개정안에는 자전을 단과대 단위로 인정하고 자전의 중운위 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투표 무산으로 이 역시 실현 불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자전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중운위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재우(포스트모던음악학 2020) 총학생회장은 “중운위 참여는 회칙에 근거해 운영되기 때문에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현재로서는 자전의 중운위 참여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자전 내부에서는 학생회 공백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본래 지난 보궐선거 기간에 자전 학생회 선출 선거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선거가 무산되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전환됐다.

도유성(자유전공학 2026)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장)은 “선거 준비 과정에서 입후보를 희망한 두 선본이 모두 제출 서류가 미비해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자전은 자체적으로 보궐선거를 추진 중이다. 도 비대위장은 “자전의 경우 학과 특성상 본선거를 보궐선거 시기에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본선거가 무산됐지만 한 번 더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총학 측에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고 밝혔다.

자전 보궐선거 관련 안건은 지난 2일 제7차 중운위에 제시됐으며 찬성 6표, 반대 5표로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됐다.

현재 자전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도 비대위장은 “선거 조건이 충족될 시 시기는 4월 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전 측은 보궐선거를 통해 향후 정식 학생회가 출범한다면 중운위 참여를 위한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비대위장은 “작년 학생회장이 중운위에 참여하지 못 할 경우 학교의 중요한 안건이나 여러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학생회가 구성된다면 회칙 개정 등 여러 방안을 통해 중운위 참여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회장은 중운위 단순 참관 등 대안에 대해 “확운위에만 참여 중인 다른 학과 단위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Instagram 대학주보 @khunews_jub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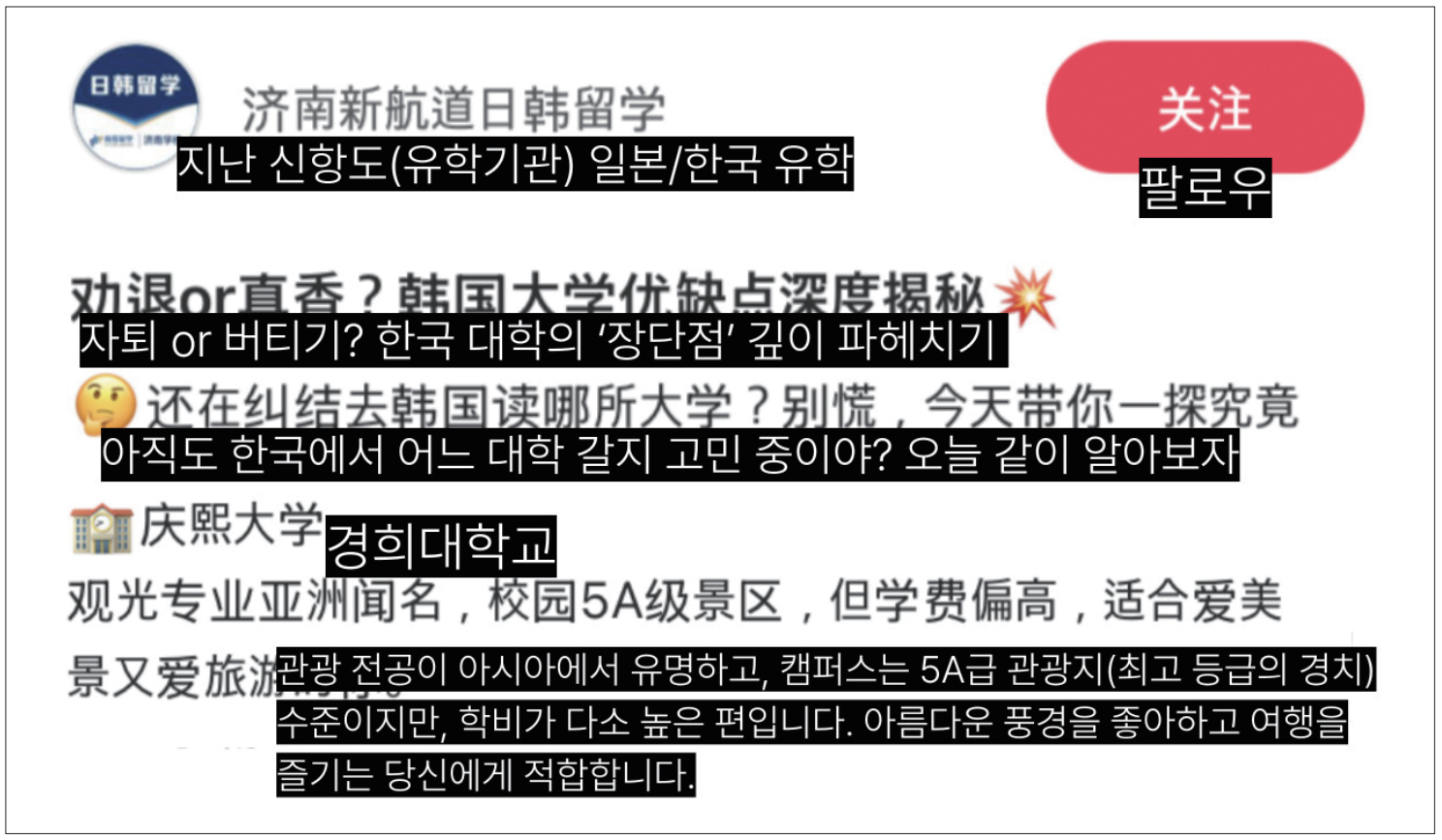
KHUNEWS_JUBO

인스타그램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메라로 QR 스캔 → 채널 팔로우

유학생 감소세, 드러난 중국 의존 구조의 한계
취업과 실용으로 바뀐 대학 선택 기준도 한 몫

이서현 기자 is4203850@khu.ac.kr



중국판 인스타그램으로 불리는 SNS '샤오홍슈(小红书)'의 한국 유학 정보 게시글 (사진=샤오홍슈 화면 캡처)

2008년 외국인 지원센터 설립을 계기로 본격적인 유학생 유치에 나선 우리학교는 422명이던 유학생 수를 2021년 3,221명까지 끌어올리며 가파른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견고할 것 같던 국제화 성과도 내실 부족 속에 흔들리고 있다. 최근 4년간 유학생 수는 735명 감소했다. 타 대학들이 많아야 400명 내외의 감소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다. 취재 결과, 유학생 감소 문제는 크게 두 갈래로 살펴볼 수 있다. 입학 이후 학업 지속을 지원하는 '내부 교육 시스템'과 외국 학생을 유치하는 '외부 전략'이다. 이번 2회차에서는 외부 전략 현황에 대해 알아본다.

꺾인 차이나 특수
파편화된 유치 행정

우리학교 유학생 유치는 중국에 의존해 양적 성장을 이뤄온 만큼, 중국인 유학생 감소가 이번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중국인 유학생 수는 지난 4년 새 2,507명에서 1,557명으로 950명 급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인 유학생 모집단 자체가 축소됐다는 목소리도 있다. 중국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고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보직분류(普职分流·일반계고와 직업계고 진학 비율을 5대 5로 제한하는 정책)'를 본격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 직업교육 강화 기조로 일반 고등학교 진학률이 중학교 졸업생의 50% 수준으로 하락한 것이다. 이후 2022년 직업교육법 개정으로 획일적 비율 적용은 완화되는 방향으로 조정됐지만, 현재 우리학교는 유학생 학력 조건을 '중국 내 일반 고등학교 및 학력 인정 직업고등학교 졸업자'로 한정하고 있는 만큼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2년 전 외국인TF팀 유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호텔관광대학 정남호 교수(경영정보시스템)는 "절대적인 유학생 숫자가 부족하다기보다는, 유치와 관리 시스템의 분절이 가장 큰 문제"라며 국제화 업무를 총괄하는 일원화된 거버넌스 부재를 지적했다.

정 교수는 "유치와 관련해 본부, 단과대, 교수 개인 단위로 각각 움직이다 보니 일관된 전략이나 표준 프로세스가 없었고 정보도 파편화돼 있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TF팀은 단기간 내 유학생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현장(단과대)의 의견을 수렴해 '유치-선발-관리'로 이어지는 전 과정의 표준화 방향과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구조 설계'에 목표를 뒀다.

당시 TF가 본부에 제안한 5대 핵심 개선안에는 ▲국가·지역별 맞춤형 유치 전략(중국의존도 탈피 및 이공계 영어트랙 개설) ▲영문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정비 ▲국제화 컨트롤타워 신설 등이 포함됐다. 특히 국제처 산하에 이른바 '글로벌전략팀'을 신설해 한국어 교육부터 학위과정, 취업, 동문 관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총괄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최근 유학생 감소 추이를 두고 "단순히 위기라기보다 구조 전환 과정으로 봐야한다"며 "무분별한 유치 확대는 오히려 학위 가치와 평판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학업 역량과 언어 능력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대학 선택 기준은
'귀국 시 학위 인정도'

중국판 인스타그램으로 불리는 SNS '샤오홍슈(小红书)'를 분석한 결과, 학생들은 '귀국 시 학위 인정도'를 대학 선택 기준으로 크게 고려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유학 관련 게시물에는 "귀국 후 취업을 고려하면 무조건 QS 100위권 이내 대학을 가야한다", "학사만 마지고 중국으로 돌아갈 때, QS 200위 밖의 대학은 인정도가 낮다"는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려대와 우리학교를 고민하는 글에 "귀국 후 취업 문제를 고려하면 QS 100위권이 유리하다"는 댓글이 달려 있었다.

중국 유학 준비생 사이에서 필수 온라인 플랫폼으로 꼽히는 '제모유학(芥末留学)'이 발표한 '2026 한국 대학 가이드라인'은 QS 순위를 기준으로 대학의 계급을 나누고 있다. 위 지표에 따르면, 한양대(159위)와 성균관대(126위)는 '세계 300위권 이내 안정권'이라는 평가와 함께 중국 내 명문대 수준의 취업 경쟁력을 갖춘 상단 추천 대학으로 분류됐다. 반면, 우리학교는 QS 331위로 명시되며 특색 있는 명문대(300~500위권 구간) 우선순위에서 뒤처진 것으로 확인됐다.

자국에 돌아가지 않고 국내에 남아 취업을 고려하는 중국 학생들에게도 QS 순위는 고려 대상이다. 법무부의 구직 비자(D-10-1) 혹은 우수인재 비자(F-2-7) 신청 시 'QS 상위 500위' 대학 졸업자는 20점의 가점이 있기 때문이다.

TF팀 당시 중국인 유학생 유치 업무를 담당했고, 현재도 한중 학회에서 우리학교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는 후마니타스칼리지 이영월(중국어학) 교수는 "중국인 유학생의 선택 기준이 문화적 관심에서 취업 중심의 실용적 판단으로 이동했다"며 "중국 내 고학력 취직난이 심해 학생들이 한국 유학을 통해 한국 기업 또는 중국 내 한국 기업 취직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유럽 등 선진국으로 유학 선택지가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한국 학위의 가치가 하락했다"고도 덧붙였다.

시장 세분화 · 영어트랙 확대 예정
'행정 구조 개선'은 아직

본부 차원에서는 유치 전략의 방향성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제처 이재기 부처장은 "학생 수의 외연적 확대를 넘어서서 우수인재 선별 유치와 지원 국가 및 전공의 다변화를 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글로벌입학팀은 국가별 유출입 패턴을 분석해 시장을 세분화하고, 우수 고교 방문 및 2+2 복수학위 프로그램 등 맞춤형 전략을 수립 중이다. 특히 이 부처장은 "영어트랙 지원자의 가파른 상승세를 반영해 교내 영어트랙을 인문·사회계열에서 이공계열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국제캠퍼스 이공계열의 강점을 살린 영어트랙 개발과 SNS 채널 다양화 등을 통해 학문적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TF팀이 제안했던 '이공계 영어트랙 개설' 및 '소셜미디어 정비'와 궤를 같이 하는 긍정적인 변화다. 이 부처장은 "어느 국가에서 오는가를 넘어 어떤 인재를 어떠한 시스템으로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방향성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개별적 프로그램들을 엮어낼 '행정 체질 개선'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앞서 지적된 본부·단과대·교수 간의 업무 분절을 해소하려면 유치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총괄할 구심점이 필요하다. 그러나 취재 결과, TF팀이 컨트롤타워로 제안했던 '글로벌전략팀'은 끝내 신설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제처 산하에는 글로벌입학팀, 글로벌교육지원팀, 국제교류팀만 배치돼 있어, 이 교수는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과제"라고 진단했다.

위조 공결 보도 뒤 달라진 병결 검토 학교 "추가 자료도 확인"

천유정 기자 estherchun0007@khu.ac.kr

【국제】 지난달 30일 위조 진료확인서 공결 신청 보도 이후 우리학교가 교강사를 대상으로 병결 증빙서류 검토 강화를 요청했다. (관련 기사: 위조 진료확인서로 공결 신청… 학내 유포 정황도 대학 징계·형사 처벌도 가능… 처방전 첨부 등 보완 필요/대학주보 1758호/2026.03.30.)

교무처 학사지원팀은 단과대학 및 교강사를 대상으로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에 따른 출석 인정 신청 증빙서류 검토 철저 요청'이라는 내용의 업무연락을 발송했다. 학사지원팀은 학생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인적 사항, 병명, 진료 일자, 발급 일자 등 기재사항과 출석인정 신청 기간 및 사유가 부합하는지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위조 의심 사례의 경우 진료확인서 외에도 처방전, 진료비계산서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사실이 확인되면 단과대학 행정실에 관련 내용을 전달해 후속 조치를 검토하도록 안내했다.

일부 교수들은 병결 서류를 이전보다 면밀히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 조운아(국어국문학) 교수는 "보도 이후 주변 교수들도 출석인정서류와 관련해 최근 문제된 경험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제출받던 진료확인서 외에도 처방전이나 약국 조제내역서, 영수증 등의 서류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구체적인 진료 내역이나 병명이 기재돼 있지 않은 서류는 반려하거나 재발급본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후마 최면정(국어국문학) 교수 역시 "기사를 본 뒤 기존보다 병결 서류를 좀 더 꼼꼼히 확인하게 됐다"며 "학생들도 관련 상황을 알고 있는지 전과는 달리 서류를 손에 든 채 사진을 찍어 첨부하더라"고 말했다.

반면 모든 학생을 잠재적 부정행위자로 봐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후마 이은봉(국어국문학) 교수는 "한두 명의 학생 때문에 모든 학생을 의심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며 "보도 이후 병결 서류를 예전보다 꼼꼼히 살펴보게 됐다는 점을 제외하면 특별히 바뀐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학사지원팀 측에 따르면 현재까지 해당 사안과 관련한 별도의 추가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교직원식당 가격 현실화 서울캠 8,000원 · 국제캠 논의 예정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올해부터 서울캠 청운관 교직원 식당 메뉴 가격이 8,000원으로 인상됐다. 학생식당은 아직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 (사진=대학주보 DB)

올해부터 서울캠 청운관 교직원 식당 메뉴 가격이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됐다. 국제캠 교직원식당은 아직 변동이 없지만 인상이 불가피해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20kg 기준 4만원대였던 쌀값이 올해 61,000원으로 폭등한 게 주된 원인이다. 양캠 학생식당은 인상계획이 없다.

작년보다 1,000원 오른 서울캠 교직원식당은 지난해부터 단계를 거쳐 인상했다. 2025년 1학기부터 7,000원 메뉴를 기본으로 하되 주 2회 정도 8,000원 메뉴를 함께 제공했다.

2학기부터는 두 가격의 메뉴를 매일 동시에 제공했다. 올해 1학기에는 7,000원 메뉴가 사라졌다.

국제캠은 아직 7,000원을 유지 중이다. 생협이 독자적으로 가격을 관리하는 서울캠과 달리 국제캠은 식당운영위원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달 말 학식 변동사항에 대해 생협과 식당운영위원회의 회의가 있을 예정이다.

가격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쌀값이지만 그 외의 원재료비 역시 대부분 올랐다. 식용유 7%, 맛김치 14%, 계란 15%, 닭고기 16% 등 품목별로 작년 대비 7%부터 24%의 인상률을 보였다.

생협 김민화 사무국장은 "쌀은 매일 나가야 하고 돼지고기, 닭고기 없이 식당을 운영할 순 없다"며 "지금 단가로는 국제캠 식단 짜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7,000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 메뉴의 한계가 있다 보니 국제캠 교직원들이 학생식당을 선택하는 현상이 생기기도 했다. 김 사무국장은 "가격 인상이 있어야 교직원식당 퀄리티를 다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어려움을 드러냈다.

서울캠 교직원식당은 두 개의 메뉴가 나가는 반면 메뉴가 하나인 국제캠은 단계적 변화가 비교적 어려운 상황이다.

김 사무국장은 "서울캠처럼 점진적으로 단계를 밟을 수 있을진 아직 알 수 없다"며 "식당운영위원회와의 회의를 해봐야 언제 얼마나 올릴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캠만 운영 중인 교직원식당 석식은 이용률이 낮아 적자가 나고 있다. 손익을 맞추기 위해선 하루에 77명 정도가 이용해야 하지만 수요는 부족하다. 김 사무국장은 "구성원들을 위해 계속 운영하고 싶지만 적자 운영을 유지하는 게 맞진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학생식당은 아직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 양캠 학생식당은 현재 다양한 메뉴가 5,800원에서 7,500원까지의 가격으로 제공되고 있다. 김 사무국장은 "학생식당은 조금씩 계속 변동을 주는 게 가능하지만 문제는 고정가로 운영하는 교직원식당"이라고 설명했다.

2026학년도 여름학기 경희대학교 표준현장실습학기제

경희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프로그램 "現場Go就"는 학생들에게 적성에 맞는 진로탐색의 기회를 부여하고 기업체의 요구에 맞는 인재 육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에게는 현장에서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진출을 위한 사전 훈련의 기회를, 참여기업에는 우수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입니다.

■ **실습기간 : 2026.06.23.(화) ~ 2026.08.31.(월) 단기현장실습**

■ **현장실습학기제 진행절차**

구분	기관신청	학생신청	기관선발	학과 심사
1차	2026.04.06.(월)~ 2026.04.17.(금)	2026.04.23.(목)~ 2026.04.29.(수)	2026.05.04.(월)~ 2026.05.11.(월)	2026.06.09.(화)~ 2026.06.10.(수)
2차	2026.04.27.(월)~ 2026.05.08.(금)	2026.05.15.(금)~ 2026.05.21.(목)	2026.05.26.(화)~ 2026.06.01.(월)	

■ **실습기관 참여기준**

•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수립(별지1호 서식)운영
– 전체 실습시간의 10%이상 25%이하의 범위에서 직무관련 교육시간 반영하여 운영
•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보장 및 현장실습학기제에 필요한 시설 · 설비 · 물품 제공
– 신규 참여기관의 경우 서면점검서 제출(매뉴얼 1호 서식), 추후 현장점검 예정
•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직무수행 기회 부여 및 관련된 교육, 지도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학생 지도 · 관리를 담당하는 현장교육담당자를 배치
• 현장실습 참여학생의 산재보험가입 후 가입증명서(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 1주일이내 학교제출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내 "고용산재보험 사업자 취득 명부신청"에서 발급 가능

■ **학생 참여기준**

현장실습 진행학기 기준,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 다만, 휴학생의 계절수업 허용범위 내에서 단기현장실습은 휴학생도 신청가능
• 졸업예정자(4년제 기준 8학기 재학생) 단기현장실습 참여 불가
• 졸업유예자 참여불가 • 유학생은 체류관리지침이 허용하는 범위 내 참여 가능
• 실습기관에서 선발이 완료되면, 사전교육 이수 및 3자협약 후 현장실습 진행가능

■ **문의처 : 현장실습지원센터(http://intern.khu.ac.kr)**

• 서울C: 02-961-2352 • 국제C: 031-201-392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B등급 전공교육 전임교원 확보는 숙제

김가빈 기자 woo289504@khu.ac.kr

우리학교 학부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6주기(2022~2025)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서 B등급(우수)을 획득해 기존 정원을 유지한다.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은 미래 역량을 갖춘 예비교원 양성을 위해 교원양성기관의 ▲교원자격 취득자의 검정기준 충족 및 발전계획 ▲교원 ▲교육과정 ▲실습형 교육 및 학생 지도 ▲적·인성 ▲교육환경 ▲교육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로 A부터 E까지 5개 등급으로 부여된다. C등급을 받을 경우 정원의 30%가, D등급을 받을 경우 정원의 50%가 감축된다. E등급 기관은 교원양성기능이 폐지된다. 우리학교 두 기관은 모두 지난 5주기(2018~2021)에 이어 6주기에서도 B등급을 받아 기존 정원을 유지하게 됐다.

우리학교는 교원양성정원을 현행대로 유지하게 됐다는 점에 만족했다. 정원이 감축될 경우 학생 수 감소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등록금 수입 감소로 이어져 대학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대학원 우정길(교육철학·교육사) 원장은 "교육대학원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교원양성의 방향과 노력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성과"라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예비교사의 만족도 및 성과, 그에 따른 피드백을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가 긍정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은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구성된다. 정량지표는 지표 항목별로 제시된 기준 대비 달성률을 근거로 평가된다. 정성지표는 지표 항목에 대한 기관의 준비 과정과 노력, 체계적인 운영 현황 및 학생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보고서를 토대로 평가된다. 사범대학이 없는 우리학교는 정량지표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다. 교직팀 태윤희 팀장은 "이번 역량진단에서는 정성지표가 향상되며 안정적으로 B등급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교직팀과 교육대학원은 공통적으로 전임교원 확보 지표에서 비사범대학이 지닌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전임교원 확보는 해당 학문 전공자가 아니라 해당 교과의 '전공교육'을 전공한 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따른다. 태 팀장은 "경영학과의 경우 마케팅 전공자가 아닌 상업교육 전공 교원을 채용해야 지표를 충족할 수 있다"며 "경영학과 재학생이 약 250명인데 교직 이수 학생은 매년 2명에 불과해 관련 전공 교원을 채용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 원장 역시 "다양한 전공을 운영하는 교육대학원의 특성상 모든 교과교육 전공주임 교수를 전임교원으로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 경우 전임교원 확보율에 반영되지 않는 맹점이 있어 아쉽지만,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우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두 기관은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정성지표 개선을 이어오고 있다. 교육대학원은 ▲해외 교원양성기관 탐방 ▲'Great Minds for Teachers' 온라인 콘텐츠 제공 ▲학교현장실습 심화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24년에는 '교원양성과정 개선대학 지원 사업'에 선정돼 메타버스 기반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등 예비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태 팀장은 "학부 교직과정 또한 교육대학원과 연계해 교육 기부 봉사활동, 디지털 교과서 분석 등 교직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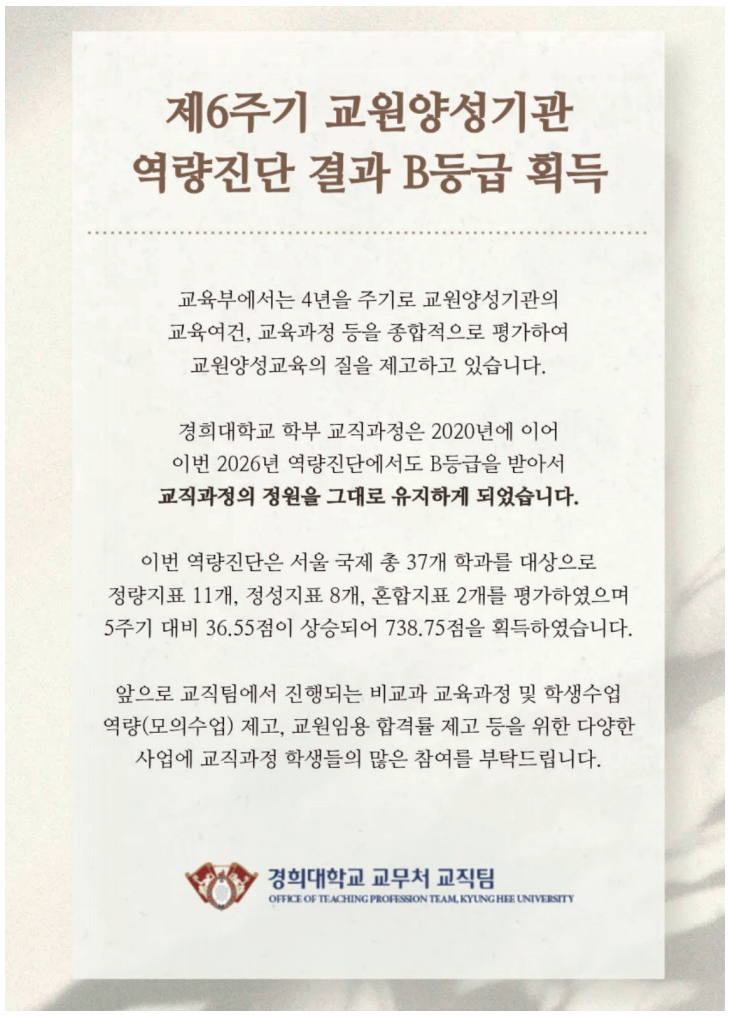
6주기 역량진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직팀과 교육대학원은 동일한 목표 달성과 실적 제고를 위해 자료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공동으로 정리하면서 평가 자료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했다.

우 원장은 "예전부터 이어져 온 교직팀과의 협력은 교원양성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7주기에서도 이러한 협력 구조를 지속하고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7주기 역량진단을 대비해 교직팀과 교육대학원은 안정적인 운영과 성과 유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태 팀장은 "비사범대학의 특성상 어려움이 있지만 교직과정 정원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범대학이 없는 학부 교직과정에서 B등급을 유지하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한 성과"라고 말했다.

우 원장은 "누적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분석해 이를 기반으로 한 학습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교육대학원이 지표별 데이터를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체 점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등급 자체보다 교육의 질을 강조했다. 우 원장은 "우수한 교원양성과 재교육의 질을 유지해 더 많은 예비교사를 배출하는 것이 교육대학원의 핵심 목표"라며 "우수한 질을 유지하다 보면 등급은 뒤따라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학교 출신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인정받는 것이 궁극적인 지향점"이라고 덧붙였다.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서 우리학교 학부 교직과정은 1000점 만점에 738.75점을, 교육대학원은 1010점 만점에 778.47점을 획득했다. (사진=교직팀 홈페이지 캡처)

국제캠 첫 재직자 전형… 전정대 '지능형전자시스템학과' 개설

김민영 기자 myk5060@khu.ac.kr

【국제】 오는 2027학년도 전자정보대학(전정대)에 '지능형전자시스템학과'가 신설된다. 해당 학과 정원 모집은 '특성화고졸 재직자 전형'을 통해 이뤄진다. 국제캠에 재직자 전형이 도입되는 것은 최초다.

기존부터 ▲국제통상·금융투자학부 ▲문화관광산업학과 ▲조리산업학과를 야간학과로 운영해오던 서울캠과 달리 그간 국제캠에는 야간학과가 전무했다. 전정대 이우휘 행정실장은 "약 3년 전부터 국제캠에도 재직자 전형 도입과 야간학과의 필요성이 본부 차원에서 논의돼 왔다"며 "뿐만 아니라 RISE 사업의 평생교육혁신 과제 중 하나인 '기업 수요 맞춤 재직자 역량강화지원' 수행을 위해 작년 10월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지능형전자시스템학과는 반도체 및 전자공학 분야에 종사하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과로 지난달 1일 학칙 개정을 통해 설립이 확정됐다. 이 행정실장은 "RISE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학교에서 재직자들이 기업 수요에 따라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끔 교육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현장을 경험해 본 우수한 자원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기존 재학생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캠 인근에 형성된 반도체 산업 환경 또한 기대 요인 중 하나다. 반도체공학과 김상혁(전기공학) 학과장은 "특히 수원과 용인을 잇는 반도체 클러스트에 고교 졸업 후 산업현장에 뛰어들어 실무 역량을 쌓아온 유능한 재직자들이 포진해 있다"며 "현장의 실무 경험에 대학의 전문 이론이 더해진다면, 지역 경제를 견인할 진정한 'K-반도체 전문가' 양성의 산실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모집 기준 및 수업 운영 방식은 기존 서울캠 야간학과와 동일하다. 학과 정원은 40명으로, 모두 정원 외 인원이며 '특성화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졸업자 중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수업은 평일 야간과 주말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기존 전정대 재학생들과 수업이 겹치지 않도록 편성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모집 기준과 입시 절차는 4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신고를 마친 후 승인을 받게 되면 추후 수시 모집 요강에 반영될 예정이다.

현재는 교육과정 확정을 위한 구체적 논의 단계를 거치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박 부총학생회장은 “그동안 학생들의 의견이 전달된 이후 학교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알기 어려웠던 한계를 넘어, 학교의 논의 과정을 공유해 학생들이 실제로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사진=권도연 기자)

루트 총학, “소통 우선하는 총학생회 될 것”

낮은 관심 확인한 선거… “일상 속 참여 넓힐 것”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2026학년도 총학생회(총학) 보궐선거가 마무리되며 양캠 총학이 출범했다. 우리신문은 양캠 총학을 만나 당선 소감과 임기 동안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국제캠 ‘route(루트)’ 총학
정재우(포스트모던음악학 2020) 총학생회장
박서연(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 2023) 부총학생회장

Q1. 당선 소감은?

부총: 투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싶다. 이번 결과는 단순한 선택을 넘어서 학생들의 의견이 더 잘 반영되길 바라는 기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그 기대의 무게를 잘 알고 있는 만큼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과 변화로 보여드리고 싶다.

Q2. 공약 이행의 우선순위와 학생들이 가장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총: 재정과 관련된 부분을 우선 이행하고자 한다. 특히 등록금심의위원회 대응, 등록금 협상 대응 TF 상시화 등을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학생 자치의 실질적인 힘은 재정 구조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기에 등록금이 오르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교육 인프라나 복지, 자치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부총: 학생이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은 학생들의 의견이 전달된 이후 학교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알기 어려웠다. 루트는 의견 전달에 그치지 않고, 학교의 논의 과정과 방향까지 공유해 학생들이 실제로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

Q3. 학생 자치 위기 상황에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부총: 최근 선거 과정과 학생 총투표 결과를 통해 학생 자치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있음을 체감했다. 이는 단순한 선거 문제가 아니라 학생 사회 전반의 신뢰와 소통 구조의 문제라고 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찾아가는 총학생회’ 등 다양한 방식의 소통 창구를 확대해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총: 학우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통을 재정 부분에서 일궈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대학 본부와도 원활하게 소통해 실질적인 복지와 교육 인프라를 확보하겠다.

Q4. 주차 공간 부족은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다. 공정한 주차권 제공 기준은?

총: 주차 공간 대비 등록 차량 수가 많은 만큼 총량제 자체는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단순히 차량 보유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 필요를 기준으로 배정해야 한다. 신체적 불편이 있는 경우, 통학 시간과 거리, 전공 특성상 장비 이동이 필요한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

Q5. 교내 시설 보수는 매년 제기되는 문제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방안은?

총: 시설 보수 문제는 재정 운영과 직결된 문제다. 등록금 인상 당시 약속된 보수 계획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던 만큼 재정 감시와 학생 자치의 힘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내겠다.

부총: 단기간에 눈에 띄는 변화가 어려운 사안인 만큼 학교 측의 중장기 계획을 학생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 등록금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Q6. 회장단이 모두 이전 코어 총학 출신이다. 학문단위재조정 등 이전 총학의 기조를 이어갈 것인가, 혹은 독자적인 방향성을 설정할 것인가?

부총: 학문 단위 재조정과 같은 사안은 특정 총학의 기조라기보다 학교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다. 해당 논의는 이전 총학에서 제기된 것이지만 필요성이 있는 만큼 이어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코어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우리만의 방향성과 실행력을 더해 나가고자 한다. 기존의 기조를 기반으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겠다.

Q7. ‘총장과의 대화’ 재추진 계획과 운영 방식은?

총: 지난해에는 일정상의 문제로 진행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는 선거 준비과정에서 총장실에 직접 문의를 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운영 방식은 우선 총학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대표자를 선발해 학생 사회 전반의 의견을 정리한 뒤, 추가로 일반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 인원을 모집해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학생들의 목소리가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

Q8. 학교와 학생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

부총: 총학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에 전달하는 대표 기구다. 단순 전달을 넘어 학생들의 요구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찾아가는 총학생회’와 ‘총장과의 대화’ 등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신뢰’라고 생각한다. 학생과 총학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학교와 학생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겠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선거에서 당선된 'MATE' 신 정후보(왼쪽)와 한 부후보(오른쪽)의 당선 소감과 계획을 들어봤다. (사진=권도연 기자)

메이트 총학 "학생 주권 실현에 힘쓸 것"

첫 과제는 마일리지 수강신청 "학생 목소리 담아내겠다"

서라수 기자 sooxoosoo@khu.ac.kr

2026학년도 총학생회(총학) 보궐선거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며 양캠 총학이 출범했다. 우리신문은 양캠 총학을 만나 당선 소감과 임기 동안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서울캠 'MATE(메이트)' 총학 신창훈(행정학2021) 총학생회장 한수연(Hospitality경영학 2023) 부총학생회장

Q1. 당선 소감은?

총: 많은 학우들께서 저희를 믿어주고 소중한 한 표를 주셔서 감사하다. 지난해 (부정투표 논란으로) 학생 자치에 실망하셨을텐데도 다시 한번 믿어본다는 마음으로 뽑아주신 것이라 생각한다. 잘 해야겠다는 걸 많이 느꼈다.

부총: 선거 과정에서 문제의식을 지니고 학교를 바꾸고 싶어 하는 학우들을 많이 만났다. 그들의 걱정과 고민을 들으며 공약을 구성했다. 학생 자치의 미래를 그려나가고 싶은 간절함을 알아주셔서 감사하다. 학교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한다. 마음 변치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Q2. 공약 이행의 우선순위와 학생들이 가장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총: 임기 전 기간 어떤 공약을 언제 어떻게 진행할지 다 계획을 세우고 있다.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학교의 일방적인 마일리지 수강신청 제도 도입에 대한 대응이다. 학교에서 다음 학기부터 수강신청 제도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해당 제도에 대한 공론장을 빠르게 형성해 학우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개개인의 고민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의제화되는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Q3. 매년 축제마다 발생하는 외부인 문제와 입장 지연, 대책은?

부총: 입장 줄을 확대하거나 도장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늘리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관례를 따르기보다 행사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을 검토해 총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할 생각이다. 사실 보안보다 안전을 더 생각한다. 입장 지연도 그렇지만 텐트를 치고 차도를 침범하는 등 지난해 발생했던 문제에 대비할 방법을 찾고 있다.

Q4. 교양과목 절대평가 확대, 향후 추진 계획은?

총: 2023년부터 논의된 사안이지만 캠퍼스 간 입장 차로 실행되지 못했다. 이번에는 양캠 총학의 연합 공약이라는 점이 다르다. 이미 우리학교의 절대평가 교양 과목이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이 흐름을 활용해 필수 교양 전체와 배분이수 과목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Q5. 등록금 협상 대응 TF 상시화,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총: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매년 1월에 열리기에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학생회가 단기간에 협상력을 발휘하기 쉽지 않다. 전대 학생회에서부터 TF를 상시 운영해 대학의 재정 운영 계획과 교육부 지침 등의 정보를 꾸준히 취합할 것이다. 이렇게 축적된 전략을 후임 학생회에 체계적으로 인수인계해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협상력을 발휘하고자 한다.

Q6. 지자체 · 타 대학과의 협력이 필요한 공약이 많은데, 현실적인 추진 전략은?

총: 선거 국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치인들이 학생들의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를 활용해 의제화하고 그들을 설득하려 한다.

부총: 특히 동대문구 연합 상생학사나 타 대학과의 연합 포럼 등은 이미 구축된 협의체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Q7. 학교와 학생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

부총: 학우들의 목소리 그 자체가 되고 싶다. 학교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학우들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총학이 먼저 정확히 이해하고 상세히 설명하겠다. 단순히 학교에서 도입하는 제도를 카드뉴스로 만들어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겠다. 총학이 먼저 학교의 문제점을 인식해서 학우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학우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지점을 파악해 학교에 요구할 것이다.

Q8. 총학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총: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학생 주권이다. 학생 주권은 학생 자치 기구 내 영향력에 국한되지 않고 학교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 전반에 학우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일리지 수강신청 제도 도입이나 TF 구성처럼 그동안 학생 대표자인 총학이 학교 측과 논의해왔다. 그러나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거버넌스는 학우들의 의견을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다. 학교가 학생들의 의견을 더 깊이 반영하도록 끊임없이 요구하고 건전한 공론장을 형성하겠다.

교내 벚꽃 예전 같지 않다… 벚나무 고령화 영향

원희재 기자 whj6470@khu.ac.kr

서울캠 정문 앞 중앙로 벚나무는 노후화로 대부분 제거돼 일부만 남아있다. 좌측은 1970년대, 우측은 현재 모습. (사진 좌=경희기록관 제공/우=원희재 기자)

"작년에 방문했을 때 보니 예전 벚꽃의 압도적인 화려함은 잘 보이지 않는다" 우리학교 한정수(행정학 1965) 동문은 고령목이 된 벚나무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다.

벚나무 고령화 시들어 가는 경희의 봄

3월 말과 4월 초 사이 벚나무 개화 시기가 찾아오면 양 캠퍼스는 벚꽃을 보러 나온 학생과 외부인으로 북적인다. 경희랜드 행사, 본관놀이와 사막 등 벚꽃을 중심으로 형성된 문화는 오랜기간 우리학교의 봄을 상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교내 벚꽃의 개화상태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연사박물관 안범철 차장은 "오랫동안 교내 식물을 연구하면서 확실히 벚나무가 고령화 된 것은 사실이며 주변 교직원 사이에서도 벚꽃이 예전만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교내 벚나무 상당수는 고령화가 진행된 상태다. 총무관리처 관리팀에 따르면 교내 벚나무 중 대부분은 개교시기인 서울캠은 1950년대 초, 국제캠은 1970년대 초에 식재돼 고령목으로 접어든 상태다. 조경수로 심어진 벚나무의 평균 수명이 60~80년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수가 고령목임을 의미한다.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고재흥(식물분자생물학) 교수는 "벚나무는 잎보다 꽃이 먼저 피는 장미과 식물로, 초기 생장은 빠르지만 생태적으로 민감한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고 교수에 의하면 노후화된 벚나무는 꽃의 크기가 작아지고 개화 기간도 짧아지는 등 전반적인 개화 품질 저하를 겪을 수 있다. 결국 교내 벚꽃 풍경의 변화는 단순한 체감의 문제가 아닌 노령화된 수목의 생리적 변화와도 맞물린 상황이다.

양캠퍼스 모두 벚나무 교체 쉽지 않아

이에 우리학교는 현재 가지치기, 돌출 뿌리 정비와 고사목 제거 등을 통해 교내목을 관리하고 있지만 고령화된 벚나무를 관리하고 새로운 묘목으로 교체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생태학적 요인과 지반 환경 등의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캠의 경우 생태학적 이유로 새로운 벚나무 묘목을 정착시키는 것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캠 총무관리처 김경태 팀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벚나무보다 수명이 긴 나무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새로운 묘목을 심어도 생태계 경쟁에서 밀려 버티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실제로 정문 중앙로 길에 묘목을 심어봤지만 대부분 생존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국제캠은 지반 환경의 한계가 문제로 지적된다. 환경조경디자인학과 민병욱(환경설계 및 계획학) 교수는 "사색의 광장 및 공대 주변 지반은 주변 건물로 인해 지반 조건이 충분히 건강하지 않다"며 "실제로 나무들이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한 경우도 종종 찾아볼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생연구 기반해 장기적 계획 필요

교내 벚꽃의 개화 상태 저하는 단순한 생식적 변화를 넘어, 우리학교의 봄을 대표해 온 벚꽃 경관과 이를 중심으로 형성된 문화의 화려함 또한 함께 약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교내 벚나무를 위해선 식생연구가 수반된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안 차장은 "현재는 교내 식생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기초적인 식생 조사와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관리 방향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이유미(산림자원학) 초빙교수 또한 "근본적인 식생에 대한 연구와 이해 없이 계획을 세운다면 생태계 파괴와 약화로 이어질 뿐이다"며 벚나무 식생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우리학교는 최근 장기 계획 수립과 식생 분석을 통해 문제에 대응할 계획을 밝혔다. 서울캠 총무관리처 한덕영 처장은 "최근 3년간 조경업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장기 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이다"며 "올해 9월과 10월 사이 벚나무 샘플 식재를 진행해 생태 영향을 분석하고, 실제로 식재가 가능한 공간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집전공

구분	과정	전공		인원
서울캠퍼스	양성	*국어교육	수학교육	00명
		생물교육	*영어교육	
		역사교육	영양교육	
		음악교육	상담심리(1,2급)	
		일반사회교육	화학교육	
		물리교육	유아교육	
		*상업교육	*미술교육	
	재교육	*국어교육	화학교육	
		생물교육	유아교육	
		역사교육	*미술교육	
		음악교육	*교육데이터사이언스	
		일반사회교육	교육방법및교육공학	
		물리교육	교육심리	
		*상업교육	*교육정책및리더십	
		수학교육	*박물관미술관교육	
		*영어교육	보건교육	
		영양교육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	
		상담심리		
국제캠퍼스	양성	수학교육	유아교육	
		체육교육	*디자인교육	
		*영어교육		
	재교육	수학교육	유아교육	
		체육교육	*평생교육	
		교사리더십	*디자인교육	
		*실용음악교육		
		*영어교육		

* 외국인 지원 가능 전공

전형일정

구분	일정
원서접수	2026.04.13(월) 10:00 부터 2026.04.20(월) 17:00 까지
전형장소 공고	2026.05.21(목) 15:00
면접고사	**2026.05.23(토) 10:00 부터**
합격자 발표	2026.06.19(금) 15:00
합격자 등록	**2026.07.01(수) 09:00 부터** **2026.07.06(월) 16:00 까지**

관련페이지

- 모집요강보기 https://edu.khu.ac.kr
- 온라인 원서접수 https://www.uwayapply.com

입학문의

- 서울캠퍼스 02-961-0135~6
- 국제캠퍼스 031-201-2021~2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 HEE UNIVERSITY

서울캠퍼스 024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청운관 603호
국제캠퍼스 171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멀티미디어교육관 504호

“책 읽는 사회가 곧 국가 경쟁력” 『출판에 대하여』 발간

이지수 기자 ssu1404@khu.ac.kr

한국 출판정책의 흐름과 산업 구조를 최초로 집대성한 『출판에 대하여』가 발간됐다. 그간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던 정책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 책은 한국 출판정책을 이해하는 교과서이자 정책 설계를 위한 참고서로 주목받는다. 저자인 김동혁 동문(생물학·신문방송학 1996)은 서일대 미디어출판학과 교수로 국내에서는 드물게 ‘출판’을 학문적으로 연구·교육하고 있다.

책에 따르면 출판정책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양적 성장에서 문화적 가치 확산으로 지평을 넓혀왔다. 1970년대에는 ‘유신독재’ 체제하에서 불량·불법 출판물 단속이 이뤄졌고, 1980년대에는 출판 통제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대하소설의 시대’로 불릴 만큼 출판업이 전문화 단계로 나아갔다. 1990년대에는 세계무역 체제 변화와 맞물려 문화가 국가의 주요 산업으로 부상했다. 특히 김대중 정부는 문화산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역대 문화정책 사상 최대 예산을 편성했다. 2000년대에는 MBC 〈느낌표〉 ‘책, 책, 책, 책을 읽읍시다!’를 계기로 독서 열풍이 일었고, 당시 추진된 ‘출판문화산업 5개년 계획’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제6차 계획이 수립되는 시점이다.

현재 한국 출판산업은 양적 성장이라는 성과와 구조적 한계를 동시에 안고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약 6만 4천 종의 도서가 발행됐고, 연간 한 종 이상을 출간한 출판사는 약 9천 개에 이르는 등 생산 기반은 여전히 견고하다. 이를 두고 김 동문은 “(출판업이) 지속적으로 ‘위기 산업’으로 언급돼왔음에도 영세한 구조 속에서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해 온 점은 분명한 강점”이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독서 인구 감소다. 김 동문은 “지금은 책을 읽는 사람만 읽는 구조”라며 “다독자와 비독자 간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독서 인구 감소는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미래 출판정책의 방향으로 ▲출판의 경계 확장과 사람 중심 출판문화 진흥 ▲출판유통 혁신 ▲독자 개발과 책문화 확산을 제시한다. 특히 독서 인구 감소 대응, 디지털 전환, K-북의 해외 진출 확대를 핵심 과제로 꼽는다.

책의 저자인 김동혁 동문은 “독서 인구 감소는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사진=이지수 기자)

아울러 미래 출판정책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김 동문은 “이미 양서를 꾸준히 읽는 독자들은 스스로 사고하고 성찰하며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독자의 자발성에만 기대기보다 독자를 확장할 수 있도록 출판산업과 정책 환경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책은 출판산업 예산과 5개년 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별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출판정책의 재구조화’가 시급하다고 제언한다. 또한 출판계 보호를 위해 현행 도서정가제를 ‘완전 도서정가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출판산업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AI 기술 활용을 지원하는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판에 대하여』는 한국 출판정책의 과거와 현재를 짚으며 ‘책 읽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향을 묻는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개인의 지적·정보적·의식적 성장을 이끄는 동시에 더 나은 사회를 준비하는 일이다. 다가오는 23일 ‘세계 책의 날’을 맞아, 우리 독자들도 책 한 권 꺼내보는 것은 어떨까.

봄에 온 가인(佳人), 그대는 경희인

경희기록관 이금화

경희의 유산 ⑫ 『가곡 〈목련화〉』

코끝을 스치는 바람 끝에 아직 가시지 않은 겨울의 한기가 느껴지는 초봄. 볕이 잘 드는 본관 앞 목련화가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한다. 우리 대학을 상징하는 꽃으로 목련을 정한 것은 1970년 5월. 하지만 교화 목련보다 우리에게 더 친숙한 것은 아마도 가곡 ‘목련화’일 것이다.

‘목련화’는 1974년 5월 우리 대학 설립자 조영식 박사 작사, 음악대학 김동진 교수 작곡으로 탄생했다. 원래 이 곡은 개교 25주년을 기념해 만든 ‘경희 칸타타 - 경희 사반세기 송가’의 2부 ‘선인송(仙人頌)’ 첫 부분에 삽입된 곡이다.

김동진 교수로부터 작사를 부탁받은 조영식 박사는 처음엔 완강히 거절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첫째, 나는 시인이 아니므로 나보다 시를 더 잘 쓸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고, 둘째, 내가 설립한 학교의 송가를 나더러 쓰라니 아무리 사실대로 쓴다고 해도 결국 자화자찬이 될 것 같아서’였다. 그래도 김 교수는 뜻을 굽히지 않고 끈질기게 찾아가 작사를 부탁했는데, 그 이유는 경희 설립 사반세기를 축하하는 칸타타인 만큼 그 가사에는 대학을 설립하고 역사를 만들어 온 사람의 의지와 정신이 깃들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뜻을 굽힌 설립자가 업무 짬짬이 작사를 진척시켜 갔고, 목련화 부분의 가사는 1973년 7월 출장길에 대서양 상공을 지나는 비행기 안에서 완성했다고 한다.

1974년 5월 30일, 개교 25주년과 크라운관 개관을 기념하는 특별 공연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경희 칸타타가 처음 연주돼 음대 합창단이 ‘목련화’를 불렀다. 며칠 후, 서울 명동예술극장에서 한국작곡가회 주최로 열린 신작 발표회에서 당시 음대 강사였던 엄정행 명예교수가 ‘목련화’를 독창으로 발표했다. 국민가곡 ‘목련화’의 탄생이었다.

“추운 겨울 헤치고 온 봄길잡이 목련화는 새 시대의 선구자요 … 함께 피고 함께 지니 인생의 귀감이로다.”

가사에서 보듯, 목련은 추운 겨울을 견뎌내는 강인한 생명의 힘을 상징한다. 현실의 고난을 이겨내고, 봄을 부르는 영원한 아름다움을 상징하기도 한다. 한국전쟁이라는 험난한 시대를 넘어 1970년대 안정과 성장의 시기로 접어든 경희가, 노랫말처럼 선구자의 모습과 하나됨의 열정으로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자는 염원이 곡에 담겨 있다. 세상을 잘 살아내기 위해선 강인함이 필요하다. 동시에 그 너머에 존재하는 너그러움, 하나됨의 미덕도 필요하다. 경희는 이런 정신세계와 함께 80여 년의 역사를 만들어 왔고, 앞으로도 그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

慶熙 칸타타
慶熙의 얼담긴 慶熙 4半世紀頌歌
慶熙學園 창립25주년기념 大交聲曲
作曲 所感
金 東 振 교수
作詩 所感
趙 永 植 박사
苦難과 榮光의 4半世紀에
創學精神 慶熙哲學을 부각
詩想과 樂想의 조화美이뤄
設立者 이미지 뚜렷이表現
慶熙의 오늘은 協同의 金字塔
1975년 교시탑 옆 목련 나무 식수 모습(좌), ‘경희 칸타타’ 작사 · 작곡 소감을 전한 1974년 5월 30일자 대학주보(우) (사진=경희기록관 제공)

평소 내성적인 편인 박 선수는 “경기장에 들어가면 180도 변한다”며 승부욕을 숨기지 않았다. 이어 “경기를 반드시 이기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이환희 기자)

대학 선수 유일 태극마크, 박승민의 특별했던 1년

선발전 재도전…“배드민턴 국대팀 합류하고 싶다”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경기장에서의 환호 뒤에는 선수들의 혹독한 훈련, 그리고 각자의 이야기가 있다. 우리신문은 체육부 선수들을 만나 그 목소리를 담는다. 성적과 기록만 아니라 종목을 향한 열정과 일상, 그리고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나눈다. 열두 번째 주인공으로 배드민턴부 박승민(스포츠지도학 2023) 선수를 만나봤다.

입학하자마자 우승
5년 묵은 우승 가뭄 끊다

“2018년이 배드민턴부 마지막 우승이라고 들었는데 대학 시절에 우승하고 싶어요. 국가대표로도 선발되고 싶어요.”

박승민 선수가 입학 인터뷰에서 밝혔던 목표다. 그렇게 그는 입학 첫 달부터 ‘전국연맹종별 배드민턴선수권대회’ 남자 단체부에서 우승했다. 지난해엔 배드민턴 국가대표팀 11명의 남자선수 중 유일하게 대학선수로 선발되기도 했다.

박 선수는 고2때부터 우리학교로 진학을 희망했다. 보통 대학팀은 고등학교 3학년 선수를 스카웃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우리학교 조한성 감독이 2학년이었던 박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 김천까지 내려갔기 때문이다. 박 선수는 “당시 팀 상황상 1학년이지만 복식 주전으로 출전할 수 있는 등 장점을 설명해 주셨다”고 회상했다.

2학년을 스카웃한 조 감독의 혜안은 결과로 이어졌다. 박 선수는 첫 우승에 이어 동료들과 함께 ‘2024 전국학교대항배드민턴선수권대회’, ‘2024 KB금융 전국연맹종별 배드민턴선수권대회’, ‘2024 김학석배 전국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3연패 하는 등 우리학교 배드민턴부의 위상을 높였다.

그의 주 종목은 두 선수가 짝을 이뤄 경기하는 복식이다. 체력이 약점이라는 박 선수에겐 혼자 코트를 뛰어다녀야 하는 단식보단 복식이 제격이었다. 복식은 코트 안에서 동료와 동선이 겹치지 않게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 박 선수는 “복식은 호흡이 가장 중요하다”며 “경기를 보면 막 다니는 것 같아도 선수끼리의 규칙이 다 있다”고 설명했다.

내성적인 성격이지만
경기장에선 180도 바뀌어

“수업 중 발표가 너무 힘들다”고 토로할 정도로 내성적인 박 선수는 “경기장에 들어가면 180도 변한다”며 승부욕을 숨기지 않았다. 박 선수는 “경기를 반드시 이기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화도, 짜증도 많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선수는 지난해 전국체전을 앞두고 발목 인대파열 부상을 입었지만 출전을 감행했다. 스스로 ‘유리몸’이라는 박 선수는 어린 시절부터 부상을 달고 살았다. 지금도 허리디스크를 가진 그는 팔꿈치, 발목, 무릎 등 “안 다쳐본 데가 없다”고 말했다. 전국체전을 돌아보며 박 선수는 “내가 빠지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며 “테이핑을 강하게 감고 뛰었는데도 성적이 잘 나와서 좋았다”고 말했다.

체육대학 전공선택교과 ‘전문실기’를 수강할 당시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배드민턴 수업을 하며 성격이 조금 바뀌기도 했다. 전문실기는 30명이 넘는 학생을 교수 혼자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선수들이 돕기도 하는 수업이다. 박 선수는 “확실히 내가 하는 것과 코칭은 다른 영역”이라며 “생각대로만 되지 않았다”며 웃었다.

특별했던 국가대표 경험
“다시 합류하고 싶다”

지난해엔 꿈에 그리던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았다. 발탁됐던 남자부 11명 중 유일한 대학선수였다. 박 선수는 “운이 좋았다”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지만, 운만으론 갈 수 없는 자리다. “어릴 땐 대표팀까지 생각하지 않고 당장 주어진 것만 열심히 했다”는 그는 “대학에 와서 국가대표 선발전에 근소한 차이로 떨어지다 보니 꿈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국가대표 선발은 박 선수의 꿈이 이뤄지는 순간이었다. 선발 전 맨 마지막 경기까지 해봐야 결과를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박 선수는 “그 땐 너무 간절해서 힘들었다”며 “(선발 후엔) 기쁜 것보다 오히려 실감이 안 났고 신기했다”고 추억했다.

국제대회 출전으로 수업에 결석해 F를 받기도 했지만 국가대표로 경기를 뛰는 경험은 더 특별한 의미를 가져다 줬다. 유럽, 동남아시아 등 다양한 대륙의 선수들과 맞붙으며 경기 경험을 쌓았고 진천선수촌에서의 추억도 생겼다. 그는 “특히 선수촌 웨이트 훈련장의 규모가 정말 크다”고 강조하며 직접 찍은 사진을 보여줬고, “밥이 정말 맛있게 나온다”는 말도 더했다.

대학에서의 마지막 1년인 박 선수 올해 목표는 우승 경력을 추가해 좋은 실업팀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뒤엔 “국가대표 선발전 출전권을 얻은 이후 다시 대표팀에 들어가고 싶다”는 꿈을 드러냈다. 그는 지금도 크리스마스 시즌 열릴 국가대표 선발전을 위해 코트 위에서 땀을 흘리고 있다.

농구부 3승 1패 초반 순항

도은오 기자 eunohdo@khu.ac.kr

【국제】 농구부가 지난 9일 선승관에서 열린 ‘2026 KUSF 대학농구 U-리그’ 고려대와의 홈 경기에서 69-77 로 패했다. 비록 이날 경기는 내줬지만 농구부는 개막 이후 연세대를 꺾는 등 3승 1패로 순항 중이다.

농구부는 1쿼터 손현창(스포츠지도학 2025) 선수의 7득점 활약과 함께 18-18로 시작했다. 하지만 2쿼터부터 리바운드 경합에서 밀려 3쿼터는 43-59로 마무리됐다. 배현식(스포츠지도학 2024) 선수가 4쿼터에만 21득점을 기록하며 추격했으나 경기는 69-77로 마무리됐다.

배 선수는 “4쿼터에 21득점을 기록했지만 전반전에 무득점을 기록하며 팀의 패배를 막지 못해 너무 아쉬웠다”고 말했다. 이날 11득점을 올린 김서원(스포츠지도학 2023) 선수는 “스몰라인업이다 보니 리바운드 경합에서의 차이가 결정적으로 다가왔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현국 감독은 “장점인 스피드를 이용해 빠른 공수전환을 활용하려 했다”며 “스몰라인업을 통해 미스매치를 만들어봤으나 잘 안 풀렸다”고 말했다.

한편 농구부는 지난달 31일 홈 개막전에선 연세대전를 75-53으로 제압하며 7년 동안 이어진 13연패의 사슬을 끊어냈다. 지난 6일 건국대전 원정경기에선 연장전까지 이어진 접전 끝에 배 선수의 28득점 활약을 앞세워 79-77로 승리했다.

이에 김 선수는 “이번 시즌 접전인 경기들이 많았는데 경기를 뒤집는 힘이 생긴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팀내 최다 득점자인 배 선수는 “3연승 후 1패가 조금은 아쉽지만 지금까지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 다음 경기 단국대전은 승리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김 감독은 “다음 단국대전이 분위기 전환을 위해 중요한 경기”라며 “단국대의 장점인 외곽슛과 압박 수비를 대처하는 훈련을 통해 꼭 이기겠다”는 다짐을 드러냈다.

사설

50% 투표율 기준 현실 반영하고 있나

최근 총학생회 보궐선거가 마무리되며 양캠퍼스 총학생회와 단과대학 단위 학생회가 빈틈없이 채워졌다. 그러나 이번 선거 과정을 돌아보면 선거가 후보자의 비전과 정책을 평가하는 과정이었다기보다 '투표율을 충족시키는 과정'에 가까웠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전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투표, 그리고 투표율 50% 도달 시까지 반복된 연장투표는 이러한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심지어 국제캠퍼스 총학생회칙 개정 투표는 세 차례 연장에도 불구하고 끝내 투표율을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

이는 단지 이번 선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매년 전국 대학 선거에서 반복되는 투표 연장과 무산은 학생 사회의 낮은 참여율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의 투표율 기준은 과연 현실에 부합하는가'라는 의문을 남긴다.

현재 우리학교의 학생회 선거와 회칙 개정 투표는 50% 이상의 투표율을 기준으로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이 오늘날에도 적절하게 들어맞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6년 국제캠 제29대 총학생회장 선거 당시 투표율이 68.6%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당시에는 '과반수 이상'이라는 기준이 압박으로 다가오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학생 사회의 참여 양상은 그때와 비교해 크게 달라졌다. 투표 방식은 비대면·온라인으로 전환되며 접근성은 높아졌지만, 참여율은 오히려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변화한 현실과 달리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 자치 참여율이 확연히 낮아진 상황에서 과거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제도는 점점 작동하기 어려워진다.

실제로 최근 선거에서는 정해진 기간 내 투표율을 채우지 못해 연장이 반복되거나 중요한 의결 사안이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참여 부족의 문제를 넘어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이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멈추게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낮은 투표율 자체를 이유로 의사결정을 무효화하는 현재의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제 학생 사회는 단순히 저조한 투표 참여를 독려만 하는 데서 나아가 투표율 기준 자체를 재검토할 시점에 놓여 있다. 일률적인 기준을 유지할 것인지, 현실을 반영해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하거나 단계적 기준을 도입하는 방식 역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투표율은 학생 사회의 참여 수준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일 수 있지만 그것이 곧 의사결정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반복되는 투표 연장과 무산을 더 이상 개개인의 참여 부족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참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현실에 맞는 기준을 다시 묻는 일이다. 50%라는 문턱이 학생 자치를 지키는 기준인지, 아니면 가로막는 장벽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폐쇄보단 개방으로

닫힌 문 앞에서

이서현 기자
is4203850@khu.ac.kr

2021년 3,221명이었던 우리학교 유학생이 2025년 2,486명으로 4년새 735명 줄었다.

사전 취재 후 담당 부서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유학생 유치를 담당하는 글로벌입학팀에 전화를 걸었다. 대내외 언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커뮤니케이션센터로 연락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교내 언론인 우리신문이 학내 사안을 취재하면서 커뮤니케이션센터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워 다시 글로벌입학팀에 전화를 걸었다. 궁금한 점을 메일로 보내달라는 안내를 받고 곧바로 질문을 보냈다.

메일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유치 경쟁이 매우 치열해짐에 따라 관련 전략 및 현황에 대해 대외적으로 별도의 입장이나 코멘트를 주기 어렵습니다." 물론 공감한다. 대학 간 유학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관련 전략을 언론에 공개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취재를 위해 다른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다. 2024년 6월 발족된 유학생 유치 TF팀에서 활동한 교수들, 캠퍼스 내 유학생들을 찾아다녔다.

그렇게 유학생 감소와 내부 교육 시스템을 다룬 1회차 기사를 내보낸 뒤 학교 측에서 연락이 왔다. 자료와 함께 2026학년도 1학기에는 반등 추이를 보인다고 알렸다. 대학 정보공시 사이트에 나와 있지 않은 글로벌입학팀만 아는 정보였다.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좋은 학내 프로그램이 많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대학의 결정은 학생들의 배움과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에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과 결과는 구성원에게 투명하게 공유돼야 한다. 드러나지 않던 문제를 드러내 보일 때 비로소 대학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교내 언론이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앞으로는 학교와 보다 원활한 소통을 통해 대학의 발전을 함께 모색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해 본다.

만평 닫힌 문을 허무는 교내 언론의 역할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 편집인 신동면 | 편집장 권도연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 인쇄 (주)에스엠씨앤피

세시봉

백수의 의미

원희재 기자
whj6470@khu.ac.kr

"너 그러다가 나중에 쉬었음 청년 된다" 최근 시험을 망친 필자에게 동기가 던진 말이다. 공부 자극을 위해 건넨 농담이었지만, 그 말은 최근 구직을 하지 못한 채 쉬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서글픈 인식을 떠올리게 했다.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쉬었음 청년의 수는 점점 늘고 있다. '쉬었음 청년'은 국가데이터처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15세에서 34세 사이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를 일컫는 용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작년 쉬었음 청년의 수는 71만 9000명으로 200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SNS에서는 취직을 준비하는 과정을 담은 게시물에 '평생 쉬었음 청년', '그냥 백수를 이쁘게 말한 거 아니냐' 등 비꼬는 댓글이 다수 달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 용어를 취직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을 조롱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그들은 과정이 아닌 성과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며 결과 없는 노력을 폄하한다. 하지만 결실을 이루지 못한 청년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는 청년층의 구직 의욕을 저하시켜 취업시장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졸업한 선배에게 근황을 묻자 취업을 하지 못해 대답을 얼버무리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쉬었음 청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을 주눅들게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숨고르기 청년'이라는 새로운 표현을 사용하며 부정적 인식을 바꾸고자 했다. 하지만 용어 변경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건네는 문화가 필요하다. 쉬었음 청년이라는 용어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취직을 준비하는 청년층의 노력을 인정하는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진배 작가의 책 '유쾌한 유머'에는 '백수일수록 당당하라'라는 말이 있다. 김 작가는 백수는 단순히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가장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 누구보다 화려한 꽃을 피우기 위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선배들에게 응원을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

“내가 다루는 우주는 ‘우리 우주’가 아니다” 수학으로 우주를 묻는 사람, 조민규

이지수 기자 ssu1404@khu.ac.kr

공부하는 사람들③ 물리학전공

#학부 4학년을 마친 학생들은 취업과 대학원 진학의 갈래 앞에 선다. 이중 대학원 진학은 ‘연구자의 삶’을 택하는 것이다. 이들이 한 명의 연구자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앎’은 개인의 성취인 동시에 사회 공공재가 된다. 이번 학기 대학주보는 ‘공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주목한다. 세 번째 주인공은 ‘고차스핀중력’을 연구하고 있는 물리학과 고에너지이론 전공 조민규(박사 3기) 씨다.

대학원에 진학한 이후 조민규 씨는 낮 12시에 연구실로 출근해 새벽 2시쯤 귀가하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생물학자 에른스트 마이어의 “9시에 출근해 6시에 퇴근할 때까지만 과학자인 사람은 없다”는 말을 인용하며, “과학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선택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사진=이지수 기자)

‘가능한 모든 우주’ 상상 자연의 수학적 원리에 흥미

우리가 사는 우주는 4차원 시공간 위에서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다. 반면 조민규 씨의 연구 주제인 ‘고차스핀중력’은 수축하는 우주를 가정하고,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스핀(물리량) 3 이상의 입자를 다룬다. 조 씨는 “우주의 근원 구조에서 우리가 사는 세계로 이어지는 과정에는 수많은 우연이 작용한다”며 “왜 꼭 지금의 우주만 가능한지 질문해보는 것”이라고 연구의 근간을 설명했다. 이어 “수학적 구조를 이해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는 것이다”며 “그래서 내가 주로 다루는 우주는 ‘우리 우주’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같은 이론물리학 안에서도 우주의 기원이나 블랙홀 등에 관심을 두는 연구자들과 달리, 조 씨는 물리현상의 기저에 깔린 수학적 구조에 더 큰 관심을 둔다. 그는 “예를 들어 블랙홀 근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는 직접 관측할 수 없기에 과학자는 우리에게 설명해줄 수 없다. 하지만 수학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 씨의 연구 역시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수학적으로 가능한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현재 우주의 성질을 상대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그의 연구분야는 당장 눈앞의 세계를 설명하거나 실용적인 결과로 이어지진 않는다. 조 씨는 “내 연구가 뛰어난 성과를 낸다고 해서 세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쓸모는 없을지 몰라도 가장 인간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동물들은 먹고살기 위해 급급한 일들을 하는 반면 고등 동물로 갈수록 생존과 무관한 일에도 몰두하기 시작한다”며 ‘연구’라는 행위에 의미를 부여했다.

> 예술적 감각을 기르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조민규 씨에게 물리학과 수학은 많은 노력과 시간을 요구하는 또 다른 종류의 ‘아름다움’이다.

어떤 즐거움은 오랜 훈련으로만 얻을 수 있어

대학원의 길을 자연스럽게 택했을 것 같은 조 씨에게도 고민의 시간은 있었다. 본격적으로 전공을 공부하게 되는 학부 2학년 시기, 물리학과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학업 고민 때문이었다. 특히 고전역학과 수리물리를 배우며 “나는 물리에 재능이 없구나. 그럼 난 앞으로 뭘 해야 하지?”라는 복잡한 심경으로 도망치듯 군대로 향했다.

그런데 심심할 때마다 펼쳐보던 교범 속에서 어느새 탄도 궤적을 계산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어쩌면 나는 이거 말고 할 짓이 없는 사람일지도 모르겠다”는 깨달음 이후, 조 씨는 이등병 시절부터 전역할 때까지 매일 저녁과 야간연등 시간마다 물리학 공부를 이어갔다. 교양수업 ‘인간의 가치탐색’을 계기로 관심이 있던 철학 공부도 병행했고, 나중에는 복수전공으로까지 이어졌다.

공부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화두다. 조 씨는 “멀리서 본 우리 인생은 그저 태어나 죽어가는 과정이기에 어쩌면 무채색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느끼는 여러 즐거움들이 삶을 윤택하고 풍요롭게 만든다”고 말했다. 예술적 감각을 기르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조 씨에게 물리학과 수학은 많은 노력과 시간을 요구하는 또 다른 종류의 ‘아름다움’이다. 그의 말처럼, 어떤 즐거움은 오랜 훈련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다.

학문의 시작은 세계에 대한 경탄에서

이론물리학 연구는 실험 분야와 달리 산업으로의 직접적인 연결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연구자들에게는 불안정한 미래를 떠올리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이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에도 ‘박사후연구원’ 신분으로 2년 단위 계약을 반복하며 세계 각지의 연구기관을 옮겨 다닌다. 조 씨는 “물리학과에는 두 부류가 있는데, 이론물리학자와 이론물리학자가 되고 싶었던 물리학자”라며 “상대성 이론을 떠올리며 학부에 입학한 학생들이 대부분이지만 이런 현실의 벽 앞에서 방향을 바꾸는 경우도 많이 봤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연구 과정에서 가장 자주 마주하는 감정은 ‘즐거움’이다. 조 씨는 플라톤의 말을 빌려와 “학문의 시작은 세계에 대한 경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연에 대한 경탄에서 출발해 깊이 파고들다 보니 알게 된 독특한 자연의 구조를 인간의 언어로 풀어내는 과정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또 우주를 연구하는 일을 두고는 “가장 인간다운 일이면서 동시에 인간을 겸손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자연의 구조 앞에서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작은지 계속 마주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사 3기에 접어든 지금, 조 씨의 연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하지만 그는 또 다른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조 씨는 “논문은 계속 쓸 것”이라며 “그래야 다음 연구 기회가 생기고, 계속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 연구에는 끝이 없다”고 말했다.